

警友 동지 여러분! 平常心을 가집시다.

—— 최 인 철 (강원도 경우회장 · 시인)

병술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는 주인에게 목숨까지 바치는 충직한 개(犬)의 해이다. 금년은 어느 해와는 달리 나라, 경위회 조직, 가정 모두 활기찬 한해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미국 교육심리학자 ‘로젠탈’은 높은 목표를 세우고 매진하는 사람은 높은 성취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우리 경위회원들은 이제는 지난날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여생을 회원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공직에서 가시밭길을 헤치며 조국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왔다. 경위회원들은 수많은 세월동안 인연을 맺었던 지휘관들이 많았으며 애환이 깃든 빗바람 추억도 그득하다.

이런 저런 현직에 있을 때 생각을 정리하며 새해 아침에 경건한 마음으로 고성 덕포 앞바다에 나가 일출을 보며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 아버지 묘소를 찾아 참배도 하고 귀촌한후 4월에는 도 경우회 회장단이 동양 최대의 댐 소양호에서 싸늘한 강바람 불어오는 서면 ‘박사마을’, 산세도 유연한 양지바른 곳에 자리한 조국전선에서 순직한 고귀한 영령들이 영면하고 계시는 경찰 추혼탑을 참배했다.

우리 회원 모두는 지난 날의 동지애를 발휘하여 마음 한구석에 언짢은 어두운 그림자 한지락 드리웠다 하더라도 병술년 새해 서로 등 두드려 주고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그리고 경직된 권위의식 등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상호간

원만한 대화를 나누며 외로움을 덜어 나갈 줄 아는 지혜를 발휘해야겠다. 아울러 우리가 염두에 두고 경계해야 할 것은 새해가 오면 새로운 맛과 멋으로 살아가려고 저마다 웃거리를 여미고 마음을 가다듬고 있지만 초심과 평상심을 잃고 방황할 때도 많다는 것이다.

대부분 퇴임을 하고 나면 자기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며 자기학대 때문에 탄력 잃은 후그렁 밤송이로 전락하고, 주변에서 또한 그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스스로 더 외로워지고 몰락의 구렁이를 파는 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늘어진 자기 오지랖을 추스르고 자기 구슬을 빚나게 닦을 줄 알아야 한다.

같은 맥락이지만 나는 최근 미국의 ‘고든 맥도널드’라는 사람이 쓴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성장”이라는 책을 후배로부터 소개받은 바 있다. 내용의 핵심은 외부환경이 아주 위험한 바다 깊은 심연을 향해하는 잠수함이 유유히 항진하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은 조정실의 흔들림 없는 상황판단과 대처능력이라고 한다. 바로 이것은 인간으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다.

즉흥적인 감정의 대처가 아니라 냉철한 자기성찰을 통해 얻은 이성적 판단 즉, 결정적 상황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마음의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다.

복잡한 사회생활속에서 마음의 골이 깊어지는 사람들에게 마음 다스리는 교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되어 새해 벽두에 우리의 중심을 견고하게 잡아 후회를 극소화 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금언으로 늘 묵상하고 싶다.

함께 가는 길

—— 경장 주 인 범 (인천 남동경찰서)

꽃잎 속에 바람이여
가느다란 몸짓 흔들림처럼
쓰러지지 않는 들쭉처럼
메마른 바람도 깨안고 가야만 하는 것은
더불어 맞이하는 희망 때문이다.
설령 지금 걸어가는 길이 외롭고 버거울지라도
미래는 아름다운 것
우리 함께 아름다운 꿈을 만들어 가자
사는 날이 조금 힘에 겨워도
따스한 마음 하나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곧 희망이 아니겠느냐

名士칼럼



송 자
(한국씨이비대학교 총장)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질서가 깨지면 정의도 없고, 발전도 어렵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법을 지키면서 질서를 유지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질서가 먼저냐, 정의가 먼저냐”를 가지고 가끔 논쟁들을 한다. 정의가 있어야 질서가 유지된다고 하면서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을 두둔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세는 질서가 유지되어야 정의도 빛을 발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즉, 질서 속에서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질서를 깨는 어떠한 일도 용서를 하지 않으려는 것이 선진국의 법집행이다.

그러므로 선진국에서는 민주 경찰이라고 하여 시민의 심부름꾼이라는 경찰이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힘을

警察을 아껴야 秩序가 선다!

- 경찰 무시하는 고질병 고쳐 선진국으로 -

발휘 하는 것이다. 보통 때는 시민들의 심부름을 하는 아주 순진한 사람들 같지만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아주 엄한 감시자가 된다. 경찰이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는데 철저히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국일수록 안전하고 정의가 바로 서게 되어 있다.

요즈음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 이젠 우리도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아니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민주 사회가 되었다. 그러므로 법질서에 따라 우리들의 의견을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이익집단들이 자기들의 뜻에 맞지 않으면 과격한 시위를 하고 있다. 자기들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경찰들이 유지하려고 하는 질서를 자기들 마음대로 깨고 있다.

많은 경찰들이 부상을 당하고 있는데도, 경찰들이 과잉진압을 했다고 또 시위를 한다. 시위 중에 이러한 불상사를 모두 경찰 때문이라고 미루는 경향이 있다. 물론 경찰도 잘못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위 중에 불상사를 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과 경찰의 질서 유지를 위한 공권력의 인정을 확고하게 하는 것을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시위 도중에 불상사가 일어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실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하면 되는 것이다. 이제는 민주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시위문화를 만들어 가야한다. 민주적인 시위문화를 정착시키려면 우리 시민들의 시위에 대한 의식이 변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변화가 경찰을 공격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 경찰은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경찰을 공격의 대상으로 하여 지금처럼 많은 부상자를 발생하게 하면 우리 사회의 질서는 깨지게 마련이다. 질서 없는 사회는 안전할 수도 없고, 발전할 수도 없다. 질서 속에서 안정된 발전을 하려면 우리는 경찰의 공권력을 인정하고 경찰을 아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경찰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처벌이 매우 엄하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경찰에게 대항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자동차가 네 거리에서 서로 엉켜 교통이 혼잡스러울 때가 있다. 우리는 이 때 교통경찰이 어디갔느냐고 야단들이다. 교통경찰이 나타나서 질서를 잡으면 또 자동차는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이 사회의 다른 분

아도 마찬가지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소란할 때도 경찰의 말을 듣고 질서 속에서 자기들의 의견을 주장하면 순리대로 일이 풀려 나간다.

자유 민주사회에서 자기의 주장을 자유롭게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다. 그러나 그 권리를 어떻게 주장하느냐는 방법은 질서를 유지하면서 하는 것이다. 이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힘은 경찰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찰의 힘을 무시한다면 그 사회는 큰 병이 들어 있다고 해도 과장된 말이 아니다. 우리는 하루 속히 이 큰 고질병을 고쳐야겠다.

이제는 우리 사회도 성숙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모습을 사회의 모든 면에서 보여 주어야 한다. 아직도 서울의 대로에 전경버스가 서 있는 모습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하루 속히 이러한 도시의 풍경을 변화해 한다. 경찰은 가능하면 보이지 않고 질서가 유지되면 좋겠다. 그러나 할 수 없이 경찰이 나타나면 우리는 경찰을 아끼고 그들의 인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질서를 유지하여 선진대국을 만들어 나가자. 경찰을 아껴야만 질서가 서게 되어 있다. 질서 속에서 발전하려면 우리는 경찰을 아끼고 보호하여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경찰 타하기 전에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부터

—— 조 흥 상 (前 초등학교교감, 원주쑥 행정발전위원)



위험장에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고생하는 경찰관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 그 결론은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너무나 힘들고 외롭다」는 것이다.

폭력시위를 막기 위한 방패막이가 되었을 뿐이었는데, 뜻하지 않는 사고로 농민 2명이 목숨을 잃은 것이 발단이 되어, 온갖 책임과 비난이 경찰에게 쏟아졌고, 급기야 경찰청장까지 중도에 물러나게 되고 말았다.

한국 경찰은 해방이후 한때 「순사」라는 딱지를 떼지 못해 세인들로부터 부정적인 이미지를 받아오기도 했으나 성장을 거듭해 온 결과 물라보게 달라졌다고 본다. 창설된이후 이제 회갑을 맞는 시점에서 대한민국 경찰도

인권경찰로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때론 공기와 같은 존재라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아니되는 필수적인 존재인 것이다. 경찰이 없는 사회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우리는 불철주야 24시간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외롭고 힘든 일을 마다않고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경찰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한다.

이번 농민사태의 책임을 지고 경찰 총수가 눈물로 퇴임사를 이어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모든 것을 경찰 탓으로만 돌리려는 이 시대의 분위기를 개탄하면서 앞으로 평화적인 시위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아울러 치안의 현장에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확실한 처우개선도 병행되어 외롭고 힘든 이들이 용기를 갖고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철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호국 선배의 국립묘지 안장에 부쳐

—— 강 호 순 (부산 참전경찰회 부회장)



존경하는 대선배 박영길 회장님.

회장님게선 언제나 인자하고 다정하고,어진 모습을 저희들의 영원한 추억 속에 남긴 채 지난 12월 15일 홀연히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회장님게선 8.15 광복 직후 극심한 혼란기에 경찰에 투신하여 당시 구국경찰의 사실상의 주축이셨던 故 최치환 경위회장님을 최 측근에서 보좌하셨고, 특히 6.25 후 공비 소탕의 본산인 지리산 전투경찰 사령부 근무시에는 「하동 화계 전투에서 사살한 당시 지리산 최후의 빨치산 두목, 저 악명 높은 이현상의 시체를 지프차 뒤의 추레라에 싣고 자갈밭 비포장 도로를 밤새 달려 다음 날 새벽 경무대에 도착했다」는 유명한 일화를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거제서당 당시인 63년 여름 경찰서 뒷산이 오랜 장마 끝에 갑자기 사태가 나 주민 61명과 주민대피를 독려하기 위하여 그곳에 들어갔던 경찰관 9명, 해서 모두 70명에 대한 합동 장례식을 경찰서 서정에서 거행했을 때 회장님이 대표로서 조사를 읽다가 목이 메어 더 이상 읽지 못하고 울어 버렸을 때 장례식에 참석한 이주일 당시 국가재건 최고 회의 부의장을 비롯하여 현역장성이던 치안국장, 도지사, 경찰국장

그리고 경찰관 유가족, 주민들도 다 같이 울어버려 장례식이 울음바다가 돼버린 역사를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상부에서는 회장님의 조사에 감동하여 일체의 문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영전시켰다지요. 회장님은 그렇게 진실한 지휘관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회장님은 부산에서 여러 곳의 경찰서장을 지내시고 정년 퇴직하셨고, 그 동안 쌓은 덕망으로 부산경우회 제12대 회장까지 역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장님은 자녀 교육도 성공하여 모두 명문대를 나오고 법조인, 대기업 간부 등으로 출세시켰습니다.

이렇게 회장님은 젊어서는 국가수호의 역군으로, 후반에는 치안행정 의 덕장으로, 노령기에는 경위회에 봉사한 성공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하여 평소 국립묘지 안장을 소망하셨습니다.

그 소망대로 지난 12. 29 대전 국립묘지 경찰 간부묘역에 경찰악대의 애잔한 선율과 많은 상주, 원로전우, 후배들의 애도 속에 먼저 작고하신 사모님과 같이 합장으로 안장되었습니다.

그렇게 금실 좋은 두 분이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시겠습니까.

이날 날씨는 춥고 잔설이 소나무 밑에 소복이 쌓여있는 가운데, 우리는 웃거리를 여미고 호국선배들이 잠드신 성역에 새로 안장된 대선배 박영길 회장님 내외분의 명복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대선배님!

평화로운 하늘나라에서 부디 고이 잠드소서.

「警友會」를 사칭한 태극기 판매자 신고 바랍니다

최근 일부 지방에서 경우회를 사칭, 태극기 등 각종 물품을 강매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전국경찰에 단속을 의뢰한 바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지역 경위회에 신고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민의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 경위회 각 시도회 및 지역회의 사업업은 중앙회장의 사업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물품의 판매사업 등은 일체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경위회」 명의를 도용하여 국기, 족자, 책자 등 각종 물품을 강매하고 있는 것은 본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자전 에세이



田錫麟 著
신국판 260페이지
값 10,000원

구입처

경찰청 · 종합학교 · 중앙학교 · 서울청 구내매점과 전국 유명매점 · 삼광출판사 (02)323-7275. 저자 전화번호 (043-848-9281)

별, 남영동에 지다

그 분이 책을 내셨다. 오직 청렴과 정직으로 올곧게 경찰생활을 마감하고 충주 계은과수원에 숨어 땅과 사과와 배와 대화하며 제2의 삶을 개척, 셋길을 걸어가는 이 시대에 되새겨보아야 할 그분의 진솔한 이야기.

경찰학교 · 경찰대학에서 경찰사랑과 공산주의 이론비판으로 한 시대를 풍미하고 이천 · 의정부 서장, 서울시경 면허과장, 대공수사단장을 역임하면서 체험한 뜨거운 사연들이 펼쳐집니다.